



동향분석		이슈분석		경제지표	
[요 약]	2	원/달러 환율 동향과 전망	23	주요 경제지표	28
I. 해외경제 동향	5				
II. 국내경제 동향	11				
III. 중소기업 동향	15				
IV. 금융시장 동향	18				

요약

I. 해외경제 동향

- 유가 및 원자재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불안 및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 기대
 -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하와 정부의 신속한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힘입어 하반기 미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로 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 형성
 - 중국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정부의 긴축정책, 글로벌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내수 증가세 덕분에 둔화폭은 크지 않을 전망
 - 일본은 작년 4분기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향후 성장세 둔화 가능성이 높으며, 유로 경제도 물가부담 증가와 소비부진,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 지속
- 국제유가(Dubai油 기준)는 달러 약세,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공급차질 및 OPEC의 감산 결정 가능성 등으로 90달러를 상회하는 선에서 등락을 거듭할 전망
- 비철금속 가격은 생산 차질 및 인플레이션 헤지를 위한 자금 유입 등으로 상승세
- 미국의 국채 2년물 금리는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며 하락세를 지속한데 반해, 10년물 금리는 국제 원자재와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
 - 일본금리(국채 10년)는 예상을 상회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상승세를 시현
- 글로벌 증시는 미 경기침체 우려와 모노라인 부실 속에 하락세 지속
 -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연준의 금리인하와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2월 초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경제지표 악화와 모노라인(채권보증사) 부실 등으로 다시 하락
 - 일본 니케이지수는 미국 주가에 연동되며 2월 초까지 상승세를 보인 후 다시 하락
 -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폭설과 미국경제 둔화의 영향, 물가 급등에 따른 긴축정책 우려 등을 배경으로 급락했고, 인도 센섹스지수도 글로벌 신용경색 고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세가 지속되며 급락

II. 국내경제 동향

- 고유가와 금융불안 등으로 소비와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양상이지만, 수출 호조에 힘입어 실물경기는 전반적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
 - 12월 민간소비의 증가세는 소폭 둔화되었는데, 금융시장 불안과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구매력의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기대지수는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 등으로 개선 추세를 유지
 -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과 건설수주액의 개선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회복세는 점진적일 전망
 - 아직까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은 향후 세계경제의 둔화 여부가 변수
 - 산업생산은 12.4% 증가하며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5.7%로 전월보다 둔화
 - 선행지수가 6개월에 걸친 상승세를 마감하고 전월대비 소폭 하락하는 등 수출과 내수 양 측면에서 둔화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경기흐름의 추세 전환을 보여주는 뚜렷한 지표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

III. 중소기업 동향

- 12월 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은 가죽가방·신발, 컴퓨터·사무용기기 업종 등의 생산 부진으로 전월보다 소폭 둔화된 1.9%를 기록
 - 산업별로는 경공업 생산은 전월과 유사(0.9% → 1.0%)하였고, 중화학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부진(2.8% → 2.3%)
 - 12월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 활동은 경공업 부문에서 개선(13.3% → 16.1%) 되면서 전월(17.2%)보다 상승한 18.6%를 기록
 - 12월 신설/부도법인 비율은 부도법인이수가 큰 폭으로 감소(151개 → 118개)함에 따라 전월보다 상승(29.1 → 36.0)
 - 12월 중소제조업의 자금사정은 2007년 중반과 비교할 때 양호한 편이지만 작년 11월부터 2개월 연속 악화
 - 중소기업의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횡보하는 가운데 선행지수(전년동월비)가 5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중소기업경기 둔화 가능성

IV. 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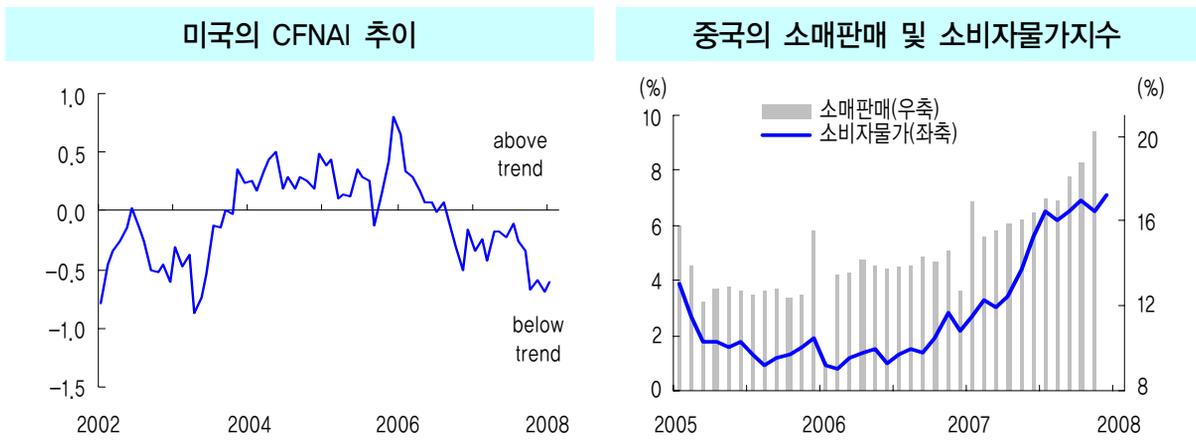
- 금리(국고채 3년)는 콜금리 목표치인 5.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 매수세가 위축되며 5.0~5.2%대의 박스권 움직임을 유지
 - 당분간 금리는 3월 정책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으나, 외국인투자자들의 향방에 따라 금리의 변동폭이 커질 가능성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과 해외 차입 약화에 무역수지 적자가 더해지며 950원을 넘는 급등세를 보이다가,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완화되는 조짐에 따라 소폭 하락해 940원대에서 횡보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진정되고 주가가 상승 반전을 모색함에 따라 930~940원대에서 등락할 전망
 - 원/엔 환율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엔/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하며 820~870원대에서 등락할 전망
- 주가(KOSPI)는 미국의 소비와 고용지표 악화, 모노라인(채권보증사) 부실 등에 따른 미 증시 추가 하락의 영향으로 1월말 1,600선을 하회하였으나, 최근 미 증시 반등과 더불어 상승세를 모색
 - 향후 주가는 미국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며 미 증시가 기술적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1,800을 고점으로 하는 상승세를 시도할 전망
- 올해 1월 중 은행 수신은 큰 폭 증가로 전환(12월 -4.3조원 → 1월 12.1조원)되었고, 자산운용사 수신도 큰 폭으로 증가(12월 -0.4조원 → 1월 23.5조원)
 - 1월 중 은행의 수시입출식예금은 세금 납부 등으로 큰 폭의 감소로 전환되었으나, 고금리 특판 등에 따라 정기예금이 대폭 증가하고 CD 및 은행채의 발행도 확대
- 올해 1월 중 중소기업대출은 전년말 상환되었던 대출의 재차입 수요와 부가세 납부, 설 자금수요 등으로 큰 폭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집단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지급, 소득세 환급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폭의 감소세를 기록
 - 중소기업대출 순증액 : 12월 -4.0조원 → 1월 7.8조원
 - 가계대출 순증액 : 12월 -0.3조원 → 1월 -0.7조원

I . 해외경제 동향

세계경제 | 경기둔화 우려 속 회복 기대감

-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향후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불안 및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당분간 지속
 - 그러나 미 정부와 연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중국 등 신흥 국가의 지속적 성장에 힘입어 향후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최근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를 보면 경기둔화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인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하반기 완만한 회복세로 반전될 가능성
 - 미국 서비스업 업황지수의 급락(41.9), 1월 비농업취업자수의 큰 폭 감소 등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으나,
 - 1월 시카고 연준의 국민경제활동지수(CFNAI)가 지난 12월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ISM 제조업지수와 소매판매액이 예상보다 양호할 뿐만 아니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등 여타 고용지표의 견조한 흐름 등을 감안하면 경기침체 우려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또한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하와 함께, 정부의 세금 환급 및 신규투자 세금 감면 등 총 1,517억 달러 규모의 경기 진작책을 초고속으로 진행하면서 세금 환급대상도 당초 발표 안보다 확대하여, 하반기 완만한 회복세로 반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 중국경제는 물가불안과 정부의 긴축 강화, 글로벌 경기둔화와 폭설 등의 국내외적인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내수 증가세 덕분에 둔화 폭은 크지 않을 전망
 - 중국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인 전년동월대비 7.1%를 기록하였으나, 식품가격 폭등의 양상이 심하지 않았고 폭설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도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물가불안은 1분기 이후 완화될 전망

- 세계은행은 미국발 세계경기 둔화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가 탄탄한 내수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08년 성장률 전망치를 10.8%에서 9.6%으로 소폭 하향 조정
- 중국지역 폭설,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생산 및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정책 강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주 : 좌측 그래프의 CFNAI(Chicago Fed National Activity Index)는 생산, 고용, 소비 등 85개 분야의 주요 경제 지표를 가중평균한 지수로서,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나타내는 0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의 움직임을 나타냄

■ 일본과 유로 경제는 당분간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될 전망

- 일본경제는 작년 4분기 견조한 기업설비투자과 수출에 힘입어 0.9%(전기비)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글로벌 경기둔화 및 엔고 현상에 따른 수출경기 악화로 지난 4분기에 비해 크게 둔화될 가능성
- 유로경제는 물가불안과 소비심리 악화로 소비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유로화 강세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
 -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유럽 단일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정책금리를 8개월 연속 4.0%로 동결

유가 **고유가 지속 전망**

- 국제유가(Dubai油 기준)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공급 불안 및 달러 약세 등으로 배럴당 90달러를 상회

-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 약세 및 나이지리아·베네수엘라 수출 차질 등 공급 불안, OPEC 감산 우려 등으로 배럴당 90달러를 상회

■ 향후 유가는 90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전망

- 경기둔화 및 계절적 수요의 위축이라는 유가 하락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달러 약세, 지정학적 위협에 따른 공급 차질 및 OPEC의 감산 가능성 등의 상승요인이 공존하고 있어 유가는 당분간 현재의 90달러를 상회하는 선에서 등락을 거듭할 전망

■ 국제유가 추이 ■

	2005년	2006년	2007년			2007년		2008년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2월	1월	2월*
유가 WTI(\$/bbl)	56.5	66.1	64.9	75.2	90.7	94.9	91.6	93.1	93.2
Brent(\$/bbl)	54.6	67.5	68.6	74.8	88.7	92.6	91.2	92.0	93.2
Dubai(\$/bbl)	49.4	61.4	64.7	69.8	83.1	86.7	86.0	87.3	88.7

* 2월은 2008.2.1~2.21일까지 평균가격

원자재 가격 **공급 차질에 따른 비철금속 가격의 상승세 지속 전망**

■ 비철금속 가격은 중국 폭설, 남아프리카 전력난 등의 생산 차질, 인플레이션 헤지를 위한 자금 유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승세 지속

- 구리 가격은 글로벌 재고 감소, 중국의 계절적 성수기, 중국 지역 폭설에 따른 생산 차질로 인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알루미늄의 경우 남아프리카 생산 차질 등의 상승세가 지속될 요인이 있으나, 풍부한 재고로 인해 가격 조정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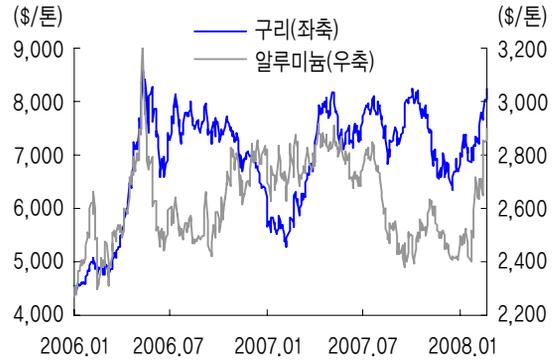
■ 금 가격은 달러화 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

- 금 가격은 달러화 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유가 강세와 달러화 약세로 인플레이션 헤지를 위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경기둔화 우려로 금리가 추가 인하될 경우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금 및 철강 가격 추이



비철금속 가격 추이



국제금리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소폭 상승할 전망

-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며 하락세를 지속한 반면, 10년물 금리는 국제 원자재와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
 - 향후 미국금리는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따라 소폭 상승할 가능성
- 일본금리(국채 10년)는 예상을 상회한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상승세
 - 일본 금리는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며 채권투자의 비중이 조정됨에 따라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

미국의 국채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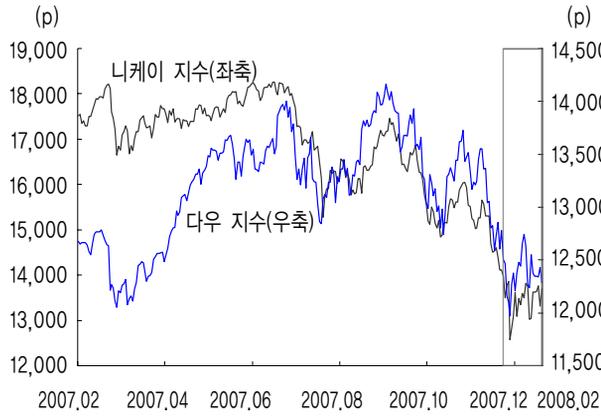
일본의 국채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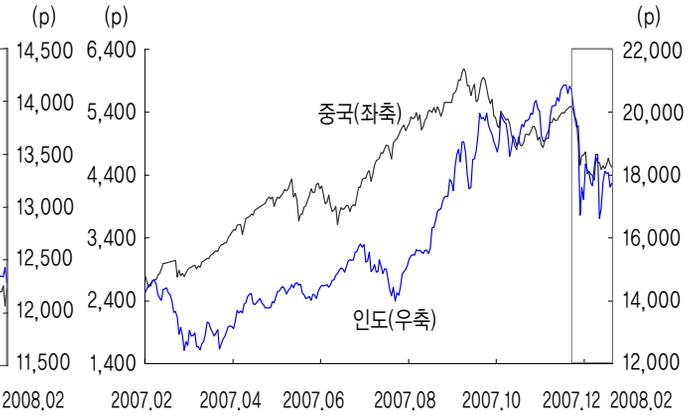
국제 주식시장 미 경기침체 우려와 모노라인 부실 속에 글로벌 주가의 하락세 지속

-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하와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2월 초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경제지표들의 악화와 모노라인(채권보증사) 부실 등으로 다시 하락
 - 미국경제를 지탱해 온 서비스업 고용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1월 ISM 서비스업지수도 급락(41.9)하였고, 필라델피아 기업활동지수도 '01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 Fitch와 S&P 등이 채권보증사인 암박과 FGIC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면서 모노라인 업계가 보증한 채권의 부실과 금융기관의 손실 확대 우려 증가
- 일본 니케이지수는 미국 주가에 연동되며 2월 초까지 상승세를 보인 후 다시 하락
 - 일본의 지난해 4분기 GDP가 예상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미국 경제의 둔화와 엔화 강세에 따라 향후 경기 회복세 유지에 대한 불안감 증대
-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폭설과 미국경제 둔화의 영향,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긴축 정책 가능성, 비유통주 보호예수 해지물량에 따른 주가 하락 우려 등으로 1월 고점 대비 20.5% 하락 (2.22일 기준)
 - 물가 급등에 따른 긴축정책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중국의 수출 및 투자도 악화될 수 있다는 리커플링(re-coupling) 우려
 - 중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을 상회하는 7.1%(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하며 향후 위안화 절상과 대출 억제 등의 긴축 정책이 유지될 전망
 - Economist誌는 중국의 수출 둔화로 인한 기업의 수익률 하락이 과잉설비에 따른 투자 위축과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
- 인도 센섹스지수는 글로벌 신용경색이 고조되며 1월 고점 대비 16.9% 하락(2.22일 기준)
 -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자금경색과 금융시장의 불안감으로 인도의 주가 급등을 견인했던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세가 이어지며 주가 하락세를 유발

미국 및 일본 주가지수 추이



중국 및 인도 주가지수 추이



주 : 미국 Dow Jones 30 Industrials, 일본 Nikkei 225, 중국 Shanghai Composite, 인도 Sensex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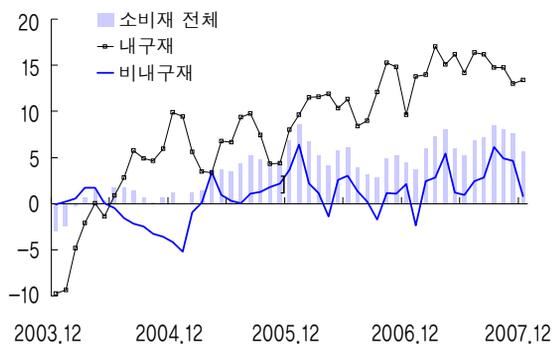
Ⅱ. 국내경제 동향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소비자 기대심리는 신정부효과 등으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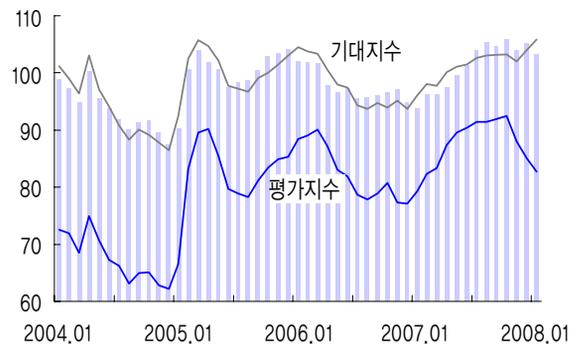
■ 12월 소비재판매는 전월보다 증가세가 낮아지는 등 2개월 연속 둔화

- 12월 소비재판매는 전월의 6.0%보다 낮은 2.6% 증가에 그치는 등 2개월 연속으로 둔화되었는데, 이는 가계소득의 악화보다는 물가 불안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판단
 - 12월 명목임금 상승률은 5.7%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소비자물가가 3.6%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승용차판매의 감소세가 전월보다 확대(-3.4% → -9.5%)되면서 내구재소비 증가세는 8.3%로 둔화되었으며, 의복과 차량용 연료 판매의 부진으로 인해 준내구재(7.4% → 2.2%) 및 비내구재(2.3% → -0.9%)의 소비도 둔화

소비재판매 증감률 추이(%)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주 : 소비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이며, 우측 그림의 막대그래프는 계절조정기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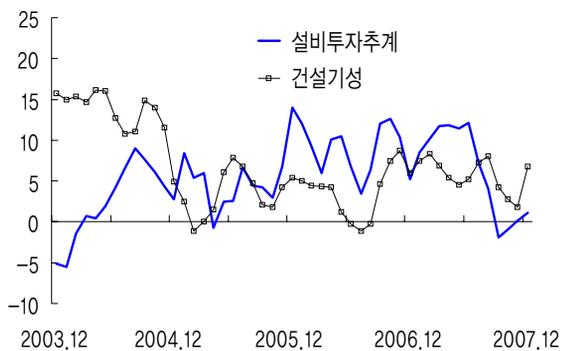
■ 1월 소비자기대지수는 105.9로 전월(104.0)에 비해 개선되면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소비자평가지수는 82.7로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기대지수와 평가지수의 괴리가 확대

- 소비자평가지수의 악화는 주가조정과 고유가 등 물가불안 요인에 기인
- 반면 6개월 후의 소비경기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소비자기대지수가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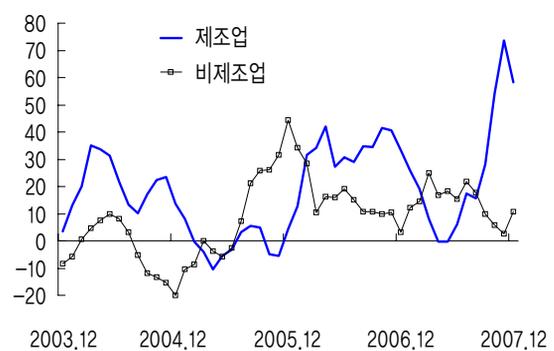
투자 설비투자자과 건설투자 모두 점진적 개선 추세

- 12월 설비투자는 기계장비와 운수장비 투자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증가세를 확대
 - 12월 설비투자는 기계장비(2.0% → 3.0%), 운수장비(10.4% → 30.4%) 등에 대한 투자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월의 4.1%보다 확대된 7.4% 증가
 -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투자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분기별로 보아도 '07년 3/4분기의 4.1%에서 4/4분기에는 7.4%를 기록하는 등 설비투자 조정국면이 점차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와 기계류 수입 등은 전월에 비해 다소 둔화
 - 12월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의 증가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증가세 둔화에 따라 전월의 33.4%에서 25.6%로 둔화되었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6% 증가에 그친 반면 비제조업은 16.2%로 증가세를 확대
 - 12월 기계류수입은 25.9% 증가하여 전월의 29.3%보다 소폭 둔화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산업별 기계수주액 증가율 추이(%)



주 : 설비투자자과 건설기성, 기계수주액 증가율 모두 3개월 이동평균임.

- 12월 건설기성은 공공부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확대에 힘입어 전월 (4.6%)보다 확대된 7.9%의 증가세를 기록
 - 12월 건설기성은 공공부문의 증가세가 2.3%에 그쳤으나, 민간부문이 8.5% 증가하였으며, 공종별로 보면 건축부문이 12.2% 증가한 반면 토목부문은 1.7%로 부진
 - 분기별로 보아도 '07년 3/4분기의 3.4%에서 4/4분기에는 6.8%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어느정도 작용한 것으로 향후에도 개선 추세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전망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의 경우 민간부문의 상대적 부진으로 인해 증가세가 전월보다 큰 폭으로 둔화(36.3% → 1.4%)

수출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둔화 가능성**

- 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0% 증가한 328.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월의 15.4%보다 소폭 확대되었으나, 일평균 수출액은 전월보다 소폭 감소

- 1월 수출은 자동차와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는데, 일평균 수출액은 13.7억 달러로 전월의 15.4억 달러보다 감소

- 일평균 수출액(억달러) : ('07.1/4)12.5 → (2/4)13.5 → (3/4)13.7 → (10월)14.4 → (11월)14.9 → (12월)15.4 → ('08년 1월)13.7

-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18.5%), 일반기계(39.1%), 석유제품(91.1%) 등이 수출호조에 크게 기여한 반면, 선박류(-8.1%), 반도체(-16.4%) 등은 부진

- 지역별로는 EU(36.1%), 러시아(21.0%), ASEAN(11.4%) 등이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국(5.0%), 미국(3.3%) 등은 비교적 부진

- OECD 경기선행지수 증가율이 지난해 7월부터 하락하며 선진국 경기의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우리 수출도 둔화될 가능성

- OECD 경기선행지수(전년동월대비, %) : ('07년 6월)2.5 → (7월)1.7 → (8월)0.2 → (9월)-0.6 → (10월)-0.6 → (11월)-0.8 → (12월)-1.2

전반적인 경기 **견실한 생산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둔화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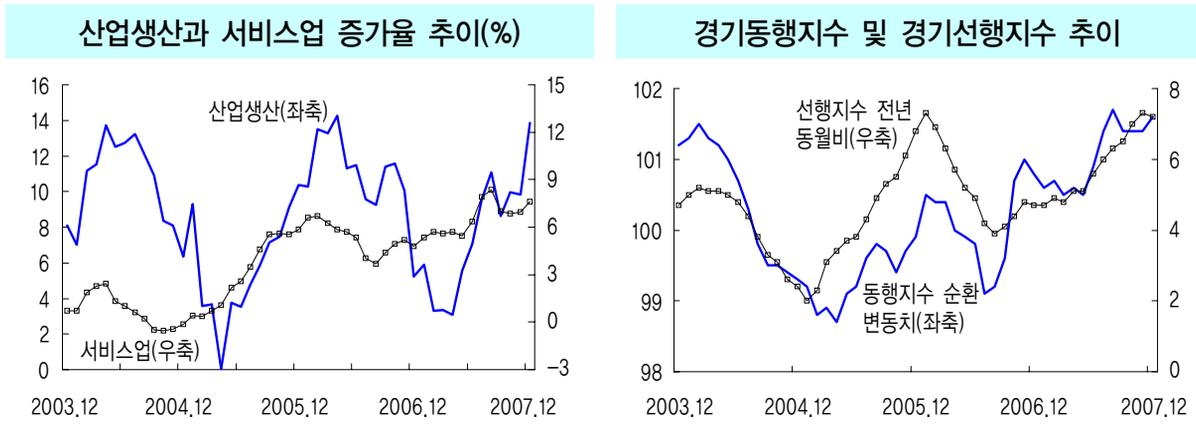
- 12월 산업생산은 수출호조에 힘입어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

- 반도체와 부품, 영상음향통신,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12.4% 증가하여 전월(10.8%)보다 증가세를 확대하였으며, 조업일수 변동을 감안한 일평균 산업생산으로 보아도 12.8% 증가하여 전월(10.4%)보다 확대

- 분기별로 보면 4/4분기에 13.8% 증가하여 3/4분기의 8.3%보다 크게 개선되는 등 '07년 중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확대

■ 반면 서비스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7% 증가하여 전월보다 둔화

- 12월 서비스업생산은 전월의 7.7%보다 둔화된 5.7% 증가하였는데, 서비스업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23.7% → 17.1%), 의료업(13.5% → 7.0%), 운수업(8.2% → 4.0%) 등이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된 것에 기인



주 : 좌측 그래프의 산업생산과 서비스업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임

■ 12월 경기동행지수는 전월대비 소폭 개선된 반면, 선행지수는 6개월에 걸친 상승세를 마감하고 소폭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나, 이를 경기흐름의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는 것은 아직 성급한 것으로 판단

- 2개월 연속으로 회복하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2월 들어 건설기성과 내수출하의 개선에 힘입어 전월대비 0.2p 상승
- 그러나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건설수주와 교역조건의 악화, 주가하락 등으로 인해 전월대비 0.1%p 하락하여 지난 6개월에 걸친 상승세를 마감
- 물가불안으로 소비와 서비스업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둔화 우려가 있으나, 경기종합지수에는 아직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기흐름의 추세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향후 2~3개월간의 경기지표를 주시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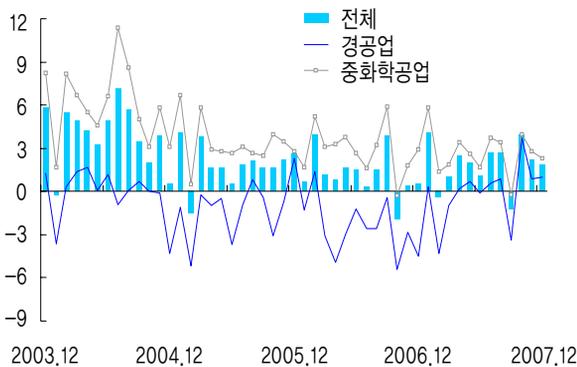
Ⅲ. 중소기업 동향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월보다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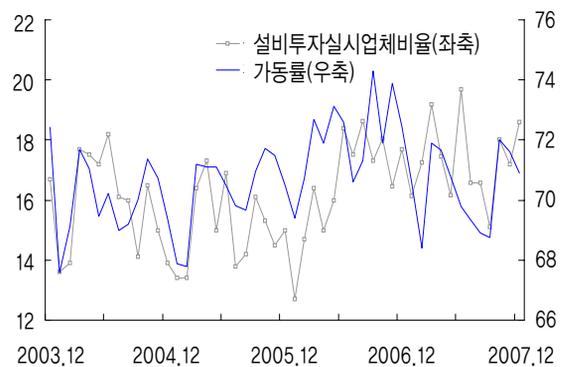
■ 12월 중소기업 생산은 전월보다 소폭 둔화된 1.9%를 기록

- 가죽·가방·신발, 컴퓨터·사무용기기 업종 등의 생산 부진으로 12월 생산증가세는 1.9%로 둔화
 - 계절조정 전월대비 생산증가율은 0.4% 감소세 기록
- 경공업 생산은 가죽·가방·신발 업종이 크게 부진했지만, 봉제의복·모피제품 업종 등의 생산이 개선되면서, 생산증가율은 전월(0.9%)과 유사한 1.0%를 기록
- 중화학공업 생산은 컴퓨터·사무용기기, 기타 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 업종 등이 전월 증가에서 감소세로 전환된 결과, 생산증가율이 11월 2.8%에서 12월 2.3%로 둔화

산업별 중소기업 생산증가율 추이(%)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및 가동률(%)



■ 12월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설비가동률은 생산증가세의 둔화가 반영되어 전월(71.6%)보다 하락(70.9%)하면서 2개월 연속 하락

■ 12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활동은 경공업 부문에서 개선되면서 전월(17.2%)보다 상승한 18.6%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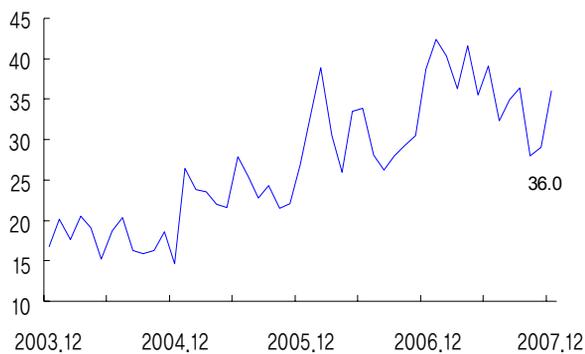
- 산업별 투자 실시업체 비율은 경공업(13.3% → 16.1%)에서 전월보다 크게 상승했으며, 중화학공업(20.1% → 20.4%)도 소폭 상승

- 경공업 부문은 음식료품 업종의 설비투자 실시업체가 큰 폭으로 상승(13.0% → 23.4%) 하면서 전월보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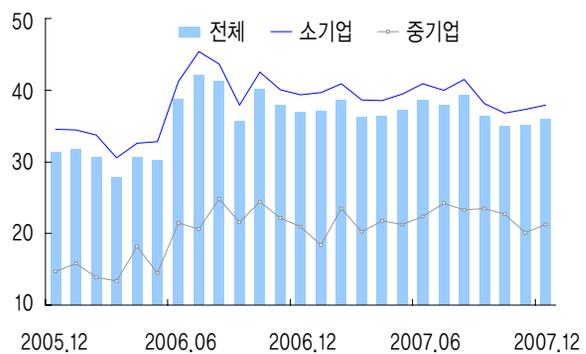
■ 12월 신설/부도법인 배율은 부도법인수의 큰 폭 감소로 전월보다 증가

- 12월 신설법인수는 전월대비 139개 감소한 4,249개를 기록했고, 부도법인수도 33개 감소한 118개로 나타나 신설/부도법인 배율이 전월(29.1)보다 상승한 36.0을 기록
- 12월 신설법인(4,249)의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전체 신설법인수 중 69.2%에 달하며, 제조업이 17.7%, 건설 및 설비업이 12.4%를 차지

신설/부도법인 배율 추이



중소제조업 자금사정 악화업체비율 추이(%)



■ 12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작년 중반과 비교하면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작년 11월부터 2개월 연속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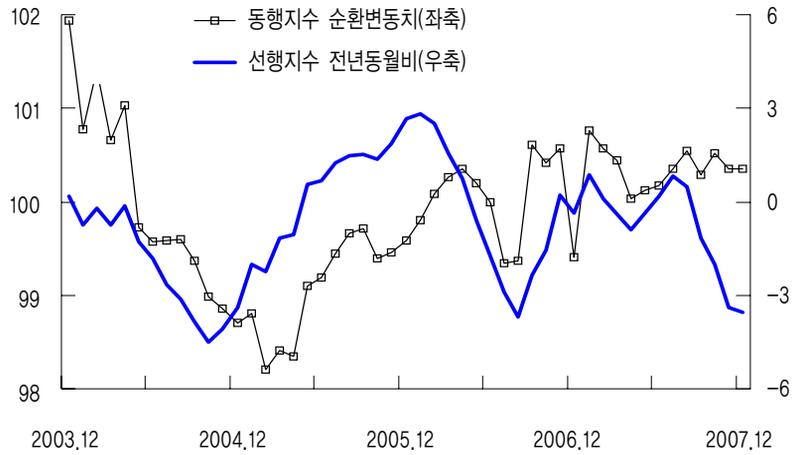
- 2007년 중반 곤란업체 비율이 30%대 후반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12월 자금사정 곤란업체 비율은 전월(35.2%)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36.0%)
- 규모별로 보면 중기업(20.1% → 21.3%), 소기업(37.3% → 37.9%) 모두 악화

■ 최근 중소기업의 경기동행지수가 회복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중소기업경기 둔화 가능성

- 현재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중소기업의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생산과 출하, 서비스업 등이 소폭 개선되면서 전월대비 0.1p 상승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수개월째 소폭의 등락을 거듭

- 그러나 경기흐름을 예고하는 중소기업 경기선행지수(전년동월비)는 BSI와 주가지수, 교역조건, 채산성 등의 구성지표들이 악화되면서 -3.5%를 기록하여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어 향후 중소기업경기 둔화 가능성 증가

중소기업 경기종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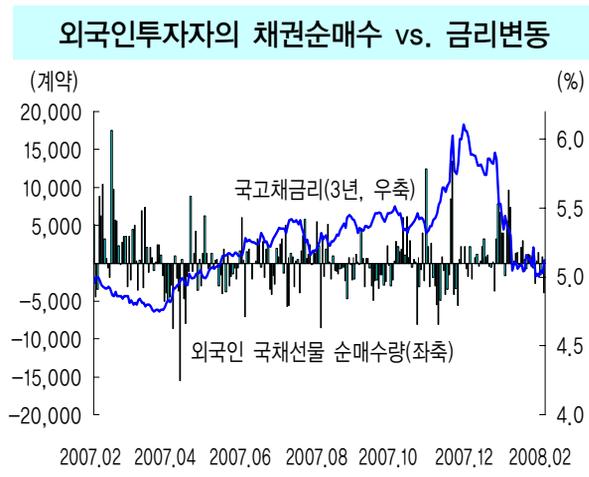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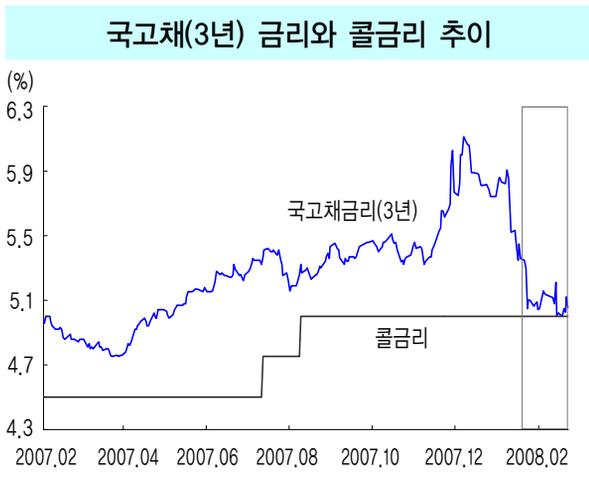
자료 : 기업은행 기은경제연구소

주 : 동행지수는 산업생산, 가동률, 수출, 출하, 서비스업 등의 5개 지표,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선, BSI, 주가, 교역조건, 신설법인수, 채산성 등의 6개 지표를 이용

IV. 금융시장 동향

금리 콜금리 동결과 주가 반등 조짐에 따라 소폭 상승 전망

- 금리(국고채 3년)는 콜금리 목표치인 5.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5.0~5.2%대의 박스권 움직임을 유지
 - 1월중 금리는 주가 급락 및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매수세 확대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국내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유지와 낙폭 과대 인식, 주가의 소폭 상승 조정 등에 따라 하락세가 제한되며 횡보 움직임을 보임
 - 미국 경제의 큰 폭 둔화와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대외적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견조한 반면,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로 2월 금통위는 콜금리 동결을 결정
 - 대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재정거래성 채권 투자를 확대하며 금리 하락을 주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금리가 콜금리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약화되는 모습
- 향후 금리는 정책금리의 지속적 동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나, 외국인투자자들의 향방에 따라 금리의 변동폭이 커질 수 있을 전망
 -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높아져 있기는 하나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 상승압력이 당분간 높게 작용함에 따라 3월 금통위에서는 정책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이번 금통위에서는 선제적으로 무리한 금리대응을 하기 보다는 경제지표의 추이를 주시하며 시중 유동성과 물가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둘 전망
 - 향후 금리는 급락에 따른 조정, 주가 반등 조짐에 영향을 받으며 당분간 상승압력이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이나, 경기둔화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상승세는 제한될 전망
 - 특히 신정부의 경기부양 의지 등에 따른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은 향후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
 - 반면 지난해 12월 이후 최근까지 채권투자 비중을 급격히 확대해 온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리상승 조짐으로 차익을 실현하고 채권시장을 이탈할 경우 금리의 상승폭이 보다 커질 가능성도 존재



환율 원/달러, 원/엔 모두 소폭 하락 전망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신용경색과 주가 급락에 따른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출과 국내 기관의 해외차입 약화,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950원을 넘는 급등세를 보였으나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완화되며 소폭 하락

○ 1월중 외국인 투자자들의 집중적 주식 매도세, 가산금리 급등에 따른 12월 기타수지(예금은행의 단기 해외차입 등)의 유출초과, 고유가로 인한 수입비용 급증이 반영되며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 등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요인으로 작용

• 이후 글로벌 증시의 급락세가 진정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주식 순매도세가 감소(1월 9.8조원 → 2.1~2.22일까지 2.1조원)하며 환율이 940원대로 소폭 하락하는데 일조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진정되고 주가가 상승 반전을 모색함에 따라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930~940원대에서 등락할 전망

■ 원/엔 환율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 고조 및 엔화 강세기조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의 영향으로 엔/달러 환율이 106~7엔대로 하락함에 따라 890원대로 급등

○ 당분간 원/엔 환율은 글로벌 시장의 불안감이 완화됨에 따라 엔화 강세가 제한을 받으며 엔/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할 수 있어 820~870원대에서 움직일 전망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추이



달러화 지수 및 원/엔 환율 추이



주식시장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모노라인 악재로 추가 하락한 후 최근 반등 모색

■ 주가(KOSPI)는 소비와 고용지표 악화 등으로 미국경제의 침체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모노라인(채권보증사) 부실로 미 증시가 추가 하락하자 1월말 1,600선 아래로 하락했으나 최근 미 증시 반등과 함께 상승세 모색

○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크게 감소(3분기 4.9%→4분기 0.6%)하였고, 미국 경제를 지탱해 주던 소비와 고용 및 서비스업 관련 지표들이 악화됨에 따라 경기침체 우려 증대

- 모노라인 부실이 신용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 관련 금융기관들의 추가 자산상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신용경색 심화에 대한 우려도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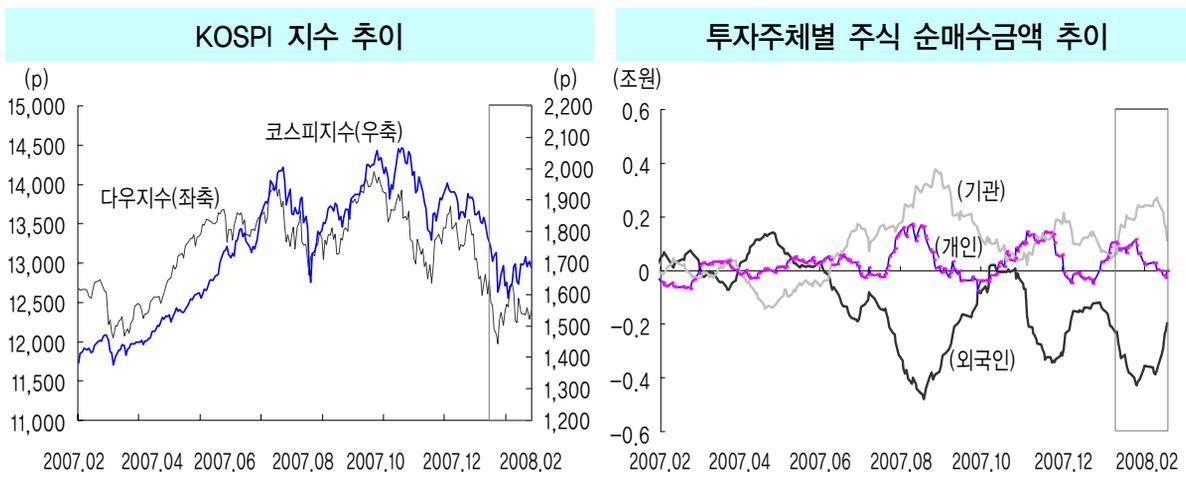
○ 그러나 최근 미국 주택경기의 바닥 징후와 ISM 제조업 지수의 반등, 소매판매 증가 등의 호재와 더불어 금리 인하와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모노라인 관련 구제책도 본격화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시도

- 미국 주택경기를 대표하는 기존주택판매가 1월에 큰 폭으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예상치를 상회하였고, 2월 주택경기지수(NAHB지수)도 2개월 연속 상승

- 지방채와 구조화 채권 사업부의 분리, 구제금융 지원 등이 제시되는 가운데 S&P의 모노라인 신용등급(AAA) 유지 결정으로 글로벌 신용경색이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평가

■ 향후 주가는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며 미 증시가 기술적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한된 상승세를 시도할 전망

- 1~2월 미국과 유럽의 기업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부실 상각이 진행되고 있어, 3월 FOMC에서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될 경우 최근의 불안감은 다소 완화될 전망
 -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과 미국경제 관련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의 방어선(미국 다우지수는 12,000선, 코스피지수는 1,600선)이 비교적 견고하게 지지되는 모습은 주식시장의 내성이 커졌음을 반영
 - 달러화 약세와 신흥국 경제의 성장에 따른 미 기업의 수출 호조와 집중적인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
- 따라서 향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미국 경제 관련 악재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가는 1,800을 고점으로 제한된 상승세를 보일 전망
 - 시장의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며 지난 1~2월에 위축되었던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다소 회복될 전망
 -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추가 부실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주가 상승의 제약 요인



자금시장 은행 수신과 자산운용사 수신 모두 큰 폭으로 증가

- 1월 중 은행 수신은 큰 폭 증가로 전환(12월 -4.3조원 → 1월 12.1조원)되었고, 자산운용사 수신도 큰 폭으로 증가(12월 -0.4조원 → 1월 23.5조원)
- 은행의 수시입출식예금은 세금 납부 등으로 큰 폭의 감소세(-14.5조)를 보였으나, 고금리 특판 등으로 정기예금은 대폭 증가(20.4조)하였으며, 차환자금 선확보를 위한 발행수요와 자산운용사 등의 매입수요가 맞물리며 CD 및 은행채의 발행도 확대

○ 자산운용사 수신은 주식형펀드로의 증가폭이 확대된 데다 MMF가 일부 공공기금 및 기관의 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큰 폭의 증가로 돌아서며 크게 증가

은행 및 자산운용사 수신 추이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05		2006		2007			2008	08.1월
	연중	연중	1월	연중	1월	11월	12월	1월	잔액
은행 수신	44.1	73.1	-11.6	51.0	-5.5	11.3	-4.3	12.1	822.9
(수시입출식 ^{주)})	30.3	15.0	-11.4	-6.9	-19.2	4.5	5.2	-14.5	217.6
(정기예금)	-8.0	16.5	-0.7	11.8	-0.1	5.0	-0.1	20.4	295.0
(단기시장성)	20.2	15.7	-0.9	24.5	11.1	5.0	-7.1	4.1	128.5
- CD	16.4	11.4	-0.6	28.2	10.3	-0.3	0.4	6.9	102.1
(은행채)	8.2	31.6	3.0	29.2	2.8	3.1	-0.4	3.3	140.7
자산운용사 수신	17.3	30.3	5.4	61.8	3.4	14.3	-0.4	23.5	320.0
MMF	5.0	-7.7	1.0	-10.4	1.4	-0.1	-5.9	8.7	55.5
주식형	17.6	20.3	6.1	69.9	3.4	12.0	9.8	11.5	127.8
채권형	-24.5	-1.0	-3.1	-9.6	-2.4	-1.1	-3.0	1.2	42.0
혼합형	7.9	5.6	1.2	-3.3	-0.5	3.7	-4.1	1.5	46.1
신종펀드	11.2	13.1	0.2	15.3	1.6	-0.2	2.7	0.7	48.5

자료 : 한국은행

주 : 요구불예금 포함

■ 1월중 중소기업대출은 전년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 상환되었던 대출의 재차입 수요뿐만 아니라 부가세 납부, 설 자금수요 등의 요인으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

○ 중소기업대출 순증액 : 12월 -4.0조원 → 1월 7.8조원

■ 1월중 가계대출은 집단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지급, 소득세 환급 등으로 마이너스 통장대출이 감소폭을 확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소폭의 감소세를 기록

○ 가계대출 순증액 : 12월 -0.3조원 → 1월 -0.7조원

기업 및 가계대출 동향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05		2006		2007			2008	08.1월말
	연중	연중	1월	연중	1월	12월	1월	잔액	
기업대출 ¹⁾	15.0	42.2	4.0	73.7	2.8	-4.2	11.5	402.7	
(대 기업)	3.9	-1.3	0.9	8.5	0.0	-0.2	3.7	39.6	
(중소기업)	11.0	43.5	3.1	65.1	2.8	-4.0	7.8	363.1	
가계대출 ²⁾	29.4	40.9	-0.5	17.8	-0.2	-0.3	-0.7	362.8	
(주택담보대출)	20.6	26.8	0.3	4.6	0.7	0.1	0.8	222.5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9.2	14.0	-0.7	13.0	-1.0	-0.4	-1.5	1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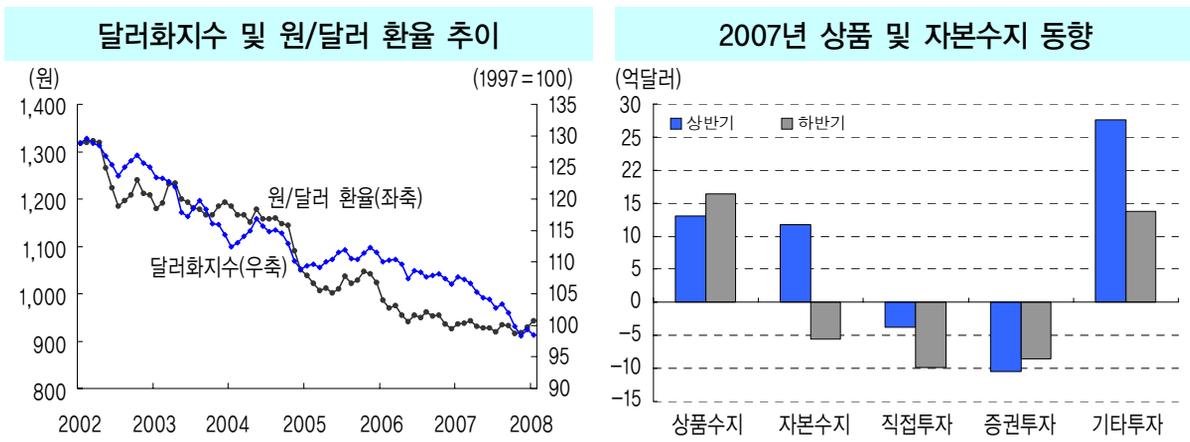
주 : 1) 은행신탁 포함, 산업은행 제외, 2) 신탁포함,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원/달러 환율 동향과 전망

올해 원/달러 환율은 상고하저(上高下低)의 형태를 보일 전망

-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2.7% 하락한 930.4원을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02년 4월부터 진행된 하락 추세를 지속하였으나, 11월 이후 최근까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며 상승세를 시현
 -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상대적 저성장과 미연준의 금리인하 등으로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모두 흑자를 보이며 10월 말까지 일중 900원선 아래로 내려가는 하락세 시현
 - 미연준이 지난해 9월 이후 최근까지 총 225bp(5.25% → 3.0%)의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주요국간 금리차가 크게 축소되며 달러화 약세요인으로 작용
 - 지난해 경상수지는 견조한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흑자폭이 확대되었고(539억 달러 → 595억 달러), 자본수지도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의 감소분을 기타수지(예금은행의 해외 단기차입 등)가 상쇄하며 초과유입(180억 달러 → 62억 달러)을 유지
 - 그러나 중국 증시 불안('07.3월)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우려가 크게 고조된 시기('07.8월, '08.1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신용경색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950원을 상회해 상승
 -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재차 불거진 지난해 11월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940원대의 박스권 움직임을 지속
 - 12월 연말 효과로 인한 수출 감소와 유가상승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폭의 감소(11월 2.6억 달러 → 12월 0.4억 달러), 글로벌 주가 급락 및 신용경색으로 인한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 유출, 은행권의 해외 차입 순상환(1.2억 달러)등이 원화 약세를 유발
- 올해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까지는 미국경제 침체 우려,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무를것지만, 하반기부터는 달러화 약세, 해외 자본 유입 개선, 경상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
 - 지난해 말 기은경제연구소는 원/달러 환율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달러화 약세와 수출 호조 등에 따라 하락세를 지속(평균 915원)한 후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조정을 받으며 소폭 상승(평균 919원)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전망의 기저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연준의 금리인하 등이 상반기까지 달러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
-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후 서브프라임 부실과 미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유동성 경색과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시현
 - 특히 이 시기에는 글로벌 신용경색이 원/달러 환율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달러화가 글로벌 약세를 보일 때도 원/달러 환율은 상승
- 이러한 상황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또한 당초 상반기 중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던 달러화 약세 및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금융시장의 불안이 진정되고 미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 가서야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을 반영하며 진행될 전망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증권업협회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평균 930원대를 나타낼 전망

-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유동성 경색, 경상수지 적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의 영향으로 920~950원대에서 등락할 전망
- 상반기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글로벌 금융불안이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보여 외국인투자자의 자금 유입은 크지 않을 전망
 - 지난해 6월 이후 이어진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올해 1월까지 월평균 5.3조)가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던 지난해 9월(9.5조원)과 올해 1월(9.8조

원)에 집중되었고, 최근 2월에도 2.1조원(22일 기준)의 순매도 기록

-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분을 상쇄시켰던 예금은행의 해외 차입도 상반기 중에는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기 힘들 전망
- 또한 향후 국내경기 둔화에 따른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난해 말 재정거래성으로 채권시장에 대거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환율 상승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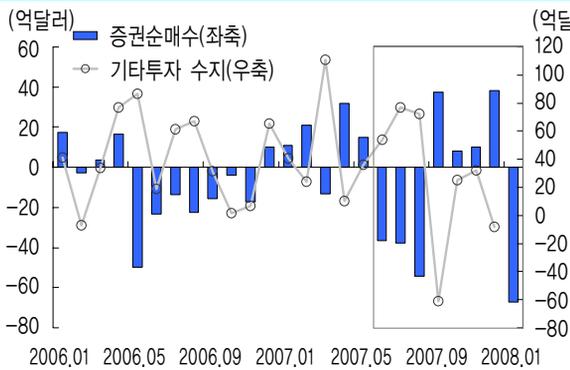
○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유가 및 원자재가격, 곡물가격의 급등 등에 따라 상반기 중 경상수지는 약세를 보일 전망

- 수출이 두자리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유가 등으로 수입규모가 확대되며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향후 미국경제 둔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수출이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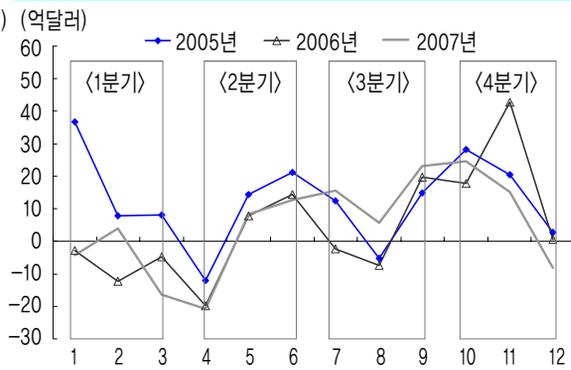
○ 상반기 중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2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은 금융시장의 불안 완화, 동절기 이후 원유수입의 감소 등 계절적인 경상수지 개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940원대에서 소폭 하락한 920~930원대에서 등락할 가능성

외국인들의 증권 순매수와 기타투자 추이



최근 3년간의 월별 경상수지 추이 비교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 : 증권순매수는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및 채권투자자금(현물)의 합이고, 기타투자수지는 국민계정상의 값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다소 하락해 평균 920원대를 나타낼 전망

■ 하반기에는 미국경제의 회복세와 글로벌 금융불안 완화 등으로 달러화 약세와 경상수지 흑자 현상이 재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추세를 보일 전망

○ 하반기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글로벌 신용경색이 완화됨에 따라 미국경제의 성장력 저하, 주요국간 금리차 확대,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약화 등 달러화의 약세요인이 다시 부각될 전망

• 하반기 미국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미국으로의 자금유입이 개선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큰 폭으로 유입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금리인하로 풍부해진 달러화 유동성을 바탕으로 미국의 해외투자가 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

• 이 경우 '05년, '07년의 사례와 같이 미국으로의 자금유입이 무역수지 적자를 하회하며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상반기에 적자를 보인 경상수지도 하반기에는 미국경제의 회복세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20억~50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전망

•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미국경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며 1.5~3.0%대의 회복세를 보일 전망

• 미국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상반기 적자를 보인 경상수지도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진정되며 엔/캐리 트레이드 재개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증가할 수 있으며, 상반기에 연기되었던 해외 차입도 재개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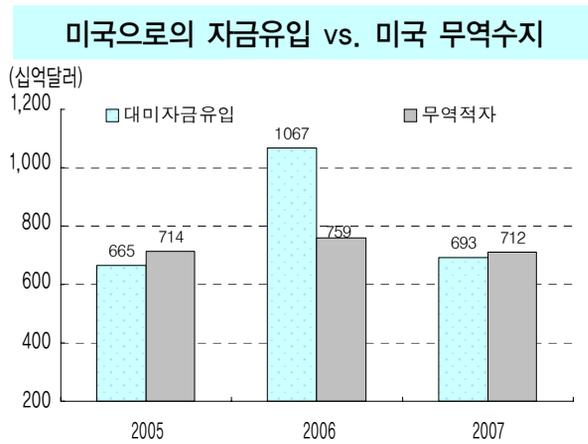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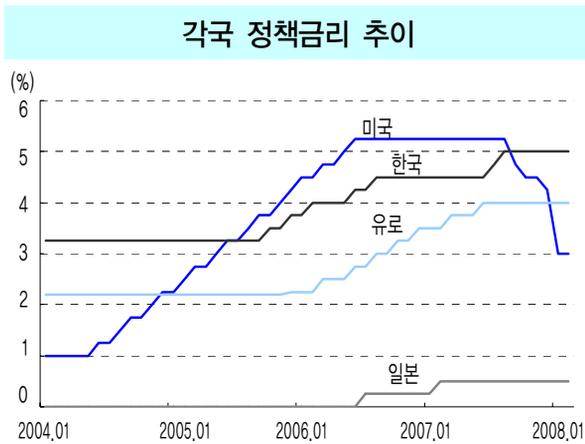
■ 그러나 하반기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여,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는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면서 평균 920원대를 기록할 전망

○ 서비스수지의 적자폭 확대와 국제원자재 및 곡물의 가격상승 등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가능성, 글로벌 증시 회복에 따른 내국인의 해외투자 증가, 은행권의 중장기 외화자금 만기도래 등에 따른 달러 수요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제약하는 요인

• 서비스수지는 '05년 136.6억달러 → '06년 189.6억달러 → '07년 205.8억달러를 기록하며 확대 추세에 있고, 신흥국 수요에 기반한 국제 원자재와 곡물 가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도 하반기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다시 확대될 전망

- 올해 국내 은행권의 외화차입 만기도래분이 약 140억 달러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중 20억 달러 이상이 각각 6월, 9월 및 11월에 집중되며 달러화 수요를 형성할 전망
- 또한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경상수지 흑자기조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는 상당부분 제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
- 국제 원자재 및 곡물 가격이 예상외의 급등세를 보이거나 신정부의 경기부양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감소할 경우,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는 예상보다 크게 제약받을 가능성도 존재



자료 : 국제금융센터

주 : 대미자금 유입액은 해외의 미증권투자+ 미국의 해외증권투자+ 기타 장기자금+ 단기자금변화+ 달러표시예금변화의 합계임

내용문의 : 이영숙(연구위원/경제학박사, 729-6811)

주요 경제지표

		2006년	2007년	2007년		2007년		2008년
				3/4분기	4/4분기	11월	12월	1월
성장	GDP(%)	5.0	4.9	5.2	5.5			
경기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00.1	101.1	101.5	101.5	101.4	101.6	
	선행지수전년동월비(%)	5.2	5.9	6.2	7.2	7.3	7.2	
산업활동	광공업생산(%)	10.1	8.2	8.3	13.8	10.8	12.4	
	생산자제품출하(%)	7.8	7.7	7.0	12.0	9.6	10.1	
	생산자제품재고(%)	6.2	4.6	4.4	4.6	6.1	4.6	
	제조업평균가동률(%)	81.1	82.3	82.4	82.4	82.0	81.7	
	제조업BSI(실적치)	83	85	86	86	88	84	83
소비	소비재판매(%)	4.7	6.6	8.6	5.7	6.0	2.6	
	소비자평가지수	82.5	87.7	91.6	88.5	88.0	85.1	82.7
	소비자기대지수	97.8	101.1	102.9	103.1	102.0	104.0	105.9
투자	설비투자추계(%)	7.4	6.6	-1.9	4.9	4.1	7.4	
	기계수주(%)	5.8	18.1	26.0	25.8	37.8	13.9	
	건설기성액(%)	3.7	5.5	3.4	6.8	4.6	7.9	
	건설수주액(%)	9.0	19.3	-5.6	29.6	36.3	1.4	
고용	실업률(%)	3.5	3.2	3.1	3.0	3.0	3.1	3.3
	취업자증가율(%)	1.3	1.2	1.3	1.2	1.2	1.2	1.0
서비스업	서비스업활동(%)	5.2	6.7	6.9	7.5	7.7	5.7	
물가	소비자물가(%)	2.2	2.5	2.3	3.3	3.5	3.6	3.9
	(전월비)					0.0	0.4	0.5
	생산자물가(%)	2.3	2.7	2.1	4.3	4.4	5.1	5.9
	(전월비)					0.4	0.8	0.8
	전국주택가격(%)	11.6	3.1	9.1	3.1	4.9	3.1	2.5
	서울아파트매매(%)	24.1	3.6	15.7	3.6	7.2	3.6	2.3
국제수지	경상수지(억달러)	53.8	59.5	44.3	31.5	15.0	-8.1	
	수출증가율(%)	14.4	14.1	11.9	18.3	17.0	14.8	15.4
	수입증가율(%)	18.4	15.3	7.3	25.8	26.8	23.2	31.1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6년	2007년	2007년		2007년		2008년
			3/4분기	4/4분기	11월	12월	1월
중소제조업 산업생산(전체,%)	1.2	1.9	1.9	1.4	2.2	1.9	
(중화학공업,%)	2.9	2.7	2.9	2.3	2.9	2.3	
(경공업,%)	-2.6	0.0	0.3	-0.6	1.0	1.0	
설비가동률(전체,%)	72.1	70.4	70.7	69.0	71.6	70.9	
(소기업,%)	71.1	69.5	69.7	68.2	70.6	70.2	
(영세기업,%)	65.7	65.1	65.7	63.8	65.8	65.6	
(중기업,%)	78.2	77.0	77.4	75.1	78.2	76.2	
설비투자실시업체(전체,%)	16.6	17.3	17.8	16.1	17.2	18.6	
(소기업,%)	14.3	15.1	15.1	13.9	14.7	16.4	
(영세기업,%)	8.9	10.1	9.93	9.8	10.4	11.8	
(중기업,%)	30.6	33.1	35.6	36.4	35.6	35.0	
자금사정악화업체(전체,%)	35.3	37.0	38.6	37.9	35.2	36.0	
(소기업,%)	37.9	39.2	39.6	39.9	37.3	37.9	
(영세기업,%)	45.5	45.1	45.7	45.9	44.1	42.9	
(중기업,%)	19.3	21.9	21.8	23.6	20.1	21.3	
중소제조업고용(증가,%)	12.9	10.8	10.6	9.7	10.5	9.8	
(감소,%)	14.3	12.4	14.1	12.3	9.8	10.0	
(증감차)	-1.4	-1.6	-3.4	-2.8	0.7	-0.2	
수출증가율(%)	13.1	15.4	15.2				
어음부도율(%)	0.02	0.02	0.02	0.02	0.04	0.03	
BSI 실적(기준=100)	84	84	80	91	(4/4)91		
전망(기준=100)	106	106	103	112	(1/4)98		
신설법인(월평균,개)	4,209	4,505	4,604	4032	4,388	4,249	
부도법인(월평균,개)	141	126	118	144	151	118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6년	2007년	2007년		2007년		2008년	
			3/4분기	4/4분기	11월	12월	1월	
자금시장*	총예금(은행)	6.1	4.3	4.0	13.5	11.3	-4.3	12.1
	(자산운용사)	2.5	5.1	3.9	26.9	14.3	-0.4	23.5
	가계대출(총액)	3.4	1.5	1.2	6.9	3.3	-0.3	-0.7
	(주택담보대출)	2.2	0.4	0.2	2.7	1.6	0.1	0.8
	기업대출(총액)	3.5	6.1	6.5	15.3	10.2	-4.2	11.5
	(대기업)	-0.1	0.7	0.7	2.4	1.6	-0.2	3.7
	(중소기업)	3.6	5.4	5.8	12.8	8.6	-4.0	7.8
금리	콜금리(연%)	4.2	4.8	4.8	5.0	5.0	5.0	5.0
	국고채3년(연%)	4.8	5.2	5.3	5.6	5.6	5.9	5.4
	회사채3년(AA-, 연%)	5.2	5.7	5.7	6.3	6.2	6.7	6.6
환율	원/달러	955.5	929.2	927.2	921.1	917.0	930.2	942.4
	엔/달러	116.3	117.8	117.9	113.1	110.9	112.3	108.0
	원/엔(100엔)	821.5	789.8	787.5	815.3	826.2	828.4	972.9
	달러/유로	1,257	1,371	1,372	1,449	1,470	1,457	1,471
국제금리	미국국채10년(연%)	4.7	4.0	4.7	4.27	4.12	4.09	3.71
	일본국채10년(연%)	1.7	1.7	1.7	1.57	1.53	1.53	1.44
유가	WTI(\$/bbl)	66.1	72.7	75.2	90.7	94.9	91.6	93.1
	Brent(\$/bbl)	67.5	72.8	74.8	88.7	92.6	91.2	92.0
	Dubai(\$/bbl)	61.4	68.2	69.8	83.1	86.7	86.0	87.3
원자재	금(\$/온스)	608.0	701.3	686.5	792.8	807.5	812.4	892.7
	전기동(\$/톤)	6,675	7,096	7,621	7,255	7,000	6,651	7,072
	알루미늄(\$/톤)	2,592	2,662	2,610	2,499	2,556	2,436	2,492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단위 : 조원, 기간중 말잔 기준 증감액, 연간·분기 자료는 기간중 월평균증감액

